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⑦



△1970년 2월 박정희대통령이 공장을 시찰하며 격려를 주었다.

(지난호에 이어)

약 20여 일에 걸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여러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일본을 다녀오면서 얻은 결론은, 그들의 남다른 근면성과 철저한 준비정신, 그리고 세계최고를 향한 끝없는 집념과 단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를 가보아도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한 모습들이 역력하고 능률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남편이 어떤 지위에 있던 대부분의 공장주부들은 직업 전선에 나가 맛벌이를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일에 전문가가 되려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들의 근면성은 전문성과 통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전문성이 불합리와 낭비를 제거하는 원동력이 되어 일본 산업계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 축진제가 되고 있다.

도쿄나 오사카에서 내가 보고 놀란 것은 그 그때와 같은 군중이 아침 저녁의 러시아워 때면 마치 홍수처럼 장관을 이루고 있는 데도 경찰의 모습을 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거리를 걷거나 열차를 타고 내리거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엄청난 혼잡 속에서도 불쾌감을 느낄 수 없었다. 택시 정류장에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손에 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다.

염치없는 새치가 따위는 구경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전 국민에게 습관화된 공중도덕과 준비정신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기풍의 바탕이 되고, 전후 20여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서도 그중 앞서가는 나라로 부상하게 된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한편은 독서의 나라 일본이 자랑하는 도쿄 마루젠(丸善)서점에 가면 책이 있다. 전문서적에서부터 최신 간행물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권의 책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그 책들을 사기 위해 입주의 여지없이 물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풍요한 물질문명을 떠받치는 지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GNP 세계 2위의 공업국에 최강수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독서열과 독서를 통한 두뇌의 과학화, 기술혁신에 의한 것이었다.

공작기계 메이커의 위상확립
1970년대는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크나큰 도전의 시기가 두차례의 오일

쇼크로 회사도 시련을 겪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공업고등학교의 실습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화천은 위기속에서도 꾸준히 쌓아온 기술우위, 품질우위를 기회로 살려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 2월 박정희대통령이 공장을 시찰하여 격려를 주었다.

화염열처리 장치 독자개발

범희봉은 남다른 데가 있는 기술자였다. 거의 6개월 동안 연구를 거듭하다 드디어 열처리 기술을 개발해 낸 것이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1969년 9월 20일 범희봉이 개발한 화염열처리 기술이 첫선을 보였다. 그 불꽃들 사이로 지나는 공작물을 열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불이 점화된 지 1분도 채 안 되어 굉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진동했다. 가스가 폭발한 것이다. 지난 반년 동안의 피말린 물거품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열처리 기술 독자개발의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거듭되는 시행착오의 세월이 또 1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순수 화천의 기술만으로 성공적인 화염열처리 장치를 개발하였다. 성공했지만 그 열처리된 베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생각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곧 해결되었다.

열처리 기술개발에 성공하자 우리는 화천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 검사 성적서', 즉 '품질 보증서'를 기계에 붙여 기계를 사간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⑬

(규원사화)

■ 一沙權正孝 옮김



지(天池)라 일컫는데, 곧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신시하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곳이다. 묘향산에는 일찍이 작은 물줄기 하나 없었으니 그

곳이 환웅이 처음으로 내려온 '태백'이 될 수 없었음은 박할 필요도 없다.

무릇 백두의 웅대한 산악은 대항(大荒)의 남쪽에 굳게 자리하여 좌우로 1천리에 뻗치고 위로 2백리를 솟아 있으며, 웅장하면서도 층을 지은 험한 능선이 길게 이어지면서 아울러 하나가 되어 있으니, 동방의 모든 나라를 위엄으로 집압하는 명산이다. 신인의 오르내림이 실로 여기에서 처음 하였거늘, 구구하게 단지 서쪽으로 내달은 낭림의 한 줄기에 매어 달린 묘향의 산 하나가 어찌 그와 같은 맑은 신성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었겠는가!

세속에선 이미 묘향을 태백으로 여기지만, 이는 곧 그 견해가 단지 압록강 이남의 한 모퉁이에만 국한된 것일 뿐이다. 곧 잘 산의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는 관군이 노래 부르고 기꺼이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로 마땅한 듯 달갑게 여기며, 그 조공의 사절이 북으로 다닌지가 수백년이 되었으나 이는 한스러워 하지 않다가 겨우 남한산성 아래의 수치만을 떠들썩해 하니 스스로 한탄스러울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황제노역과 향판제의 문제점을 보고

- 현대판 포청천이 필요할 때다 -

■ 괴원 권해조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해난사고로 잊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 '황제노역'과 지역유착에 관련한 향판(鄕判)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2010년 1월 탈세. 횡령혐의로 기소된 허xx 전 대구그룹 회장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 했으나, 장 xx 광주지법 원장이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2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으로 감형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 원으로 환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2심대로 확정되어 49일 노역으로 탐감 받아 허전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유치됨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황제노역' 사건은 향판인 전 광주지법원장의 '일당 5억원' 판결과 대법원 확정판결, 같은 지역 출신의 감사의 벌금선고유예 구형,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행을 고르 피고인 허 전 회장 선택의 합작품이다. 이는 하루 5만~10만 원대 환형유치(換刑留置) 선고를 받고도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는 서민 범죄자들과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황제노역' 사건 판결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장 법원장은 결국 사표를 내고 취임 50일 만에 퇴임하고, 대법원도 허 피고인도 '황제노역'을 중단하고 벌금형으로 바꾸어 석방하였다. 일당 5억 원은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는 어긋나며 법원과 검찰, 국민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차이가 많아 화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향판과 지역인사와의 유착은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 예로 2011년 호남지역 향판인 선xx 광부지법 수사 부장판사는 법정처벌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13년 광주법원 순천지원은 1천억 원 대 교비 횡령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xx씨에게 보석(保釋)결정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 현재 전국 법관 2776명 가운데 향판이 35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전문성을 살려 지역 주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으나, 일부 향판은 지역 유력층과 유착하여 법조 부조리의 중심이 되어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향판들의 횡령선고와 영장발부, 재판의 집행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토착버리 수사가 향판 때문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총재단회비	
△권주연(부총재)	40만원
△권재주(부총재)	100만원
△권영렬(부총재)	100만원
△권순선(부총재)	100만원
△권영훈(감사)	80만원
△권인탑(부총재)	50만원

소계 470만원

■ 중무위원회비	
△권영창(영주)	20만원
△권영빈(서울)	20만원
△권혁무(대구)	20만원
△권태현(창원)	20만원
△권기만(안동)	20만원

소계 100만원

■ 대의원회비	
△권혁용(서울)	10만원
△권석호(합천)	10만원
△권중학(안동)	10만원
△권영역(안동)	10만원
△권만집(상주)	10만원
△권학수(안동)	10만원
△권순수(영주)	10만원
△권돈원(대전)	10만원
△권두현(수원)	10만원
△권병운(영덕)	10만원
△권창용(예천)	20만원
△권중화(광주)	10만원
△권병후(수원)	10만원
△권혁인(대구)	10만원
△권혁도(예천)	10만원

소계 160만원

■ 창조금	
△권계주(부총재)	100만원

합계 830만원

분열시대에 찾아온 평화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위 전 남북 조 시대는 보통 혼란의 시대라고 말한다. 중국 천지가 사분오열 되어 있고 서로 좀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시절이었으니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한 경우에는 전쟁으로 성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자 장수가 사랑하는 애처(愛妻)를 병사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말로 비극적인 시대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에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송(宋)나라에서는 오히려 문제 유의룡은 정치를 잘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자치통감》에는 그가 천성이 인자하고 후덕하며 공손하고 검소하여 정치하는 것에 부지런하였고, 법률을 지켰으나 준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였으나 해이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30년 동안 송의 영역 안에서는 편안하고 무사하였으며, 호구는 증가하였는데, 조세를 내거나 요역을 제공하는 것도 세부(歲賦)를 내는 것뿐이었으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일할 뿐이었다. 정부의 강제적인 동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염(閭閻) 집에서도 학문

을 강의하고 외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선비들은 도타워서 지조가 숭상되었으며, 향촌에서는 경박한 것을 수치로 여겼다.

이 시대에 황제 유의룡의 동생 형양왕(衡陽王) 유의계(劉義季)에 관한 일화가 있다. 유의계는 이때에 형주와 상주에 있는 8개 주의 군사를 지휘하는 도독이었으며, 형주자사를 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부지역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란 대부분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편은 유의계가 일찍이 봄에 들뜬에 나가 사냥을 하였는데, 거적을 쓰고 밭을 가는 노인이 있었다. 유의계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사냥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를 몰리치려고 하였다. 이를 본 노인이 말하였다.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는 것은 옛 사람들이 경계하던 바입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은 《상서》에 나오는 말로 하(夏)의 임금 태강이 사냥을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기록하면

서 쓰인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으로 알았는데, 엄청난 말을 한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너 사냥을 그렇게 하다가는 옛날 태강처럼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에 이어서 그 노인은 "이제 따뜻한 햇볕이 널리 퍼져있으니 하루라도 밭을 갈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시기를 잃게 되는데, 어찌 짐승이나 쫓아다니며 쾌락하고자 하여 늙은 농부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유의계가 말을 세우고 "현명한 사람이로구나."라고 하면서 그 노인에게 음식을 주려고 명령했지만 그 노인은 이를 사양하면서 다시 말했다. "대왕께서 농사지를 시기를 빼앗지 않는다면, 경내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대왕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늙은 농부가 어찌 감히 혼자 대왕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개인에게 배풀지 말고 전체에 골고루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유의계는 이 현인에게 이 름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물러났다.

황제의 동생이며, 한 지역의 통수권자인 유의계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노인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황제 유의룡이 크게 학문을 일으켜서 학(學)을 세웠으니, 그 덕택에 교육이 철저하게 보급되었던 덕택일 것이다. 경제와 정치가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를 듣노라면 요즈음이 난세처럼 느끼는 것은 내란의 생각일까?

수 없는 일이다. 이 길에 나선 가일사람도 있었으니, 권영달이 그 주인공이다.

권영달은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고등상업학교(서울상대 전신)에 재학중, 6·10만세운동으로 일경에 쫓기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뒤 권영달은 예천 대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최현배를 비롯한 한글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나라말 연구자를 통해 민족문제 해결에 나섰다. 비투쟁기에 한글 연구는 민족운동의 한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1941년 8월 그가 펴낸 『조선어문법』은 그러한 결실 가운데 하나다.

1년뒤 조선어학회 박해가 벌어졌다. 그 뒤로 그에 대한 일체 감사가 더욱 심해진 것은 당연하다. 그런 환경에서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던 그는 광복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다. 그가 어디에서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알 수 없다. 언어민족주의자에 대한 일체의 감사가 탄압을 그도 비켜가지 힘들었으리라는 짐작이 든다. 그 무렵 남긴 『조선문철자법』(원고본)은 그의 마지막 유작인 셈이다.

(끝)

독립운동과 권오설의 등장 ⑤

(지난호에 이어)

1940년 6월에도 그는 러시아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독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그러한 자리에 있던 인물 가운데 있던 풍산 상리 출신이자 배재중학 1년생이던 이혜직은 권오설에게서 받은 감화가 컸다. 1940년 12월 권오설은 다시 중로경찰서에 검거되어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해방을 맞았다.

광복 직전 마지막 독립운동으로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조선국권회복연구단이 있다. 안동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하고 항일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제 경찰의 집중적인 감시로 드러나는 바람에 40여명의 불들렸고, 1명이 유치장에 숨기고, 나머지는 광복 이틀 뒤 풀려났다. 여기에 참가한 가일출신으로 권혁수(이명 권재택)가 있다. 그는 8부자 계열 가운데 하나인 권동직의 손자였다. 권동직과 그의 아들 오창은 서간도로 망명하였는데, 다시 오창의

아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언어민족주의와 민족운동

권영달의 유작 『조선문철자법』. 민족이 많은 국가를 되찾으려면, 민족 언어와 민족 역사 그리고 민족 종교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박은식·신채호·주시경 등 한말 이후 민족지사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신채호와 박은식의 역사서술에 맞서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역사를 조작하고 나섰고, 대중교 중심의 독립운동 조직을 부수기 위해 '미신타파운동'을 내걸고 단군 죽이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 여운을 부수는 작업도 그랬다. 1942년 조선어학회를 탄압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나라 역사를 쓴다는 것이나, 나라말을 찾고 바로 세우는 작업도 민족운동의 범주에 든다. 지라말 보존 작업을 한 순간에 이를 수 없는 매우 지리한 작업이다. 온 성을 다 쏟지 않고서는 이를



게 된다. 최근 일부 검사나 판사들의 증폭세력 비주거나 피고인에 막말과 고압적인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된지도 오래다. 차제에 사법부는 국가안위를 해치는 공안사범 처벌강화와 사법부의 근본적인 반성과 개혁이 선행된다. 특히 법조의 비리가 사라지고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판사들의 사상검증, 판결문 공개, 평가제도 법제화, 징계강화 등 사법개혁을 위한 혁명적 결단이 요망된다. 중국 송나라 때 공정한 판결로 서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았던 현대판 포청천(包青天)이 필요할 때다.

바로잡습니다

1. 종보 466호 1면 지역총진회장협의회 회 부회장 명단 중 영주총진회 권영창 회장이 누락되었으며 2면 참석자 명단에 권재호 산청총진회장도 누락되었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2. 6면 등암공의 후손 위기(韓器)의 후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성곡공(城谷公) 선(宣)의 아들은 익창(益昌)이고 밀(密)의 아들은 익형(益亨)이며 용(容)의 아들은 익수(益壽), 익복(益福)이다. 익형(益亨)은 선조 36년 식년시 생원으로 급제하였다.